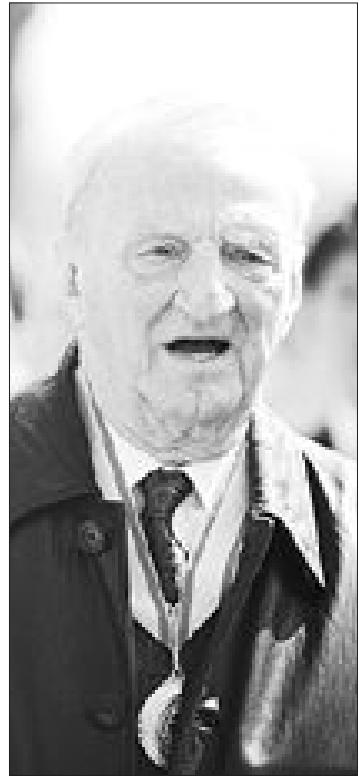


광주 온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조지 킬리안 집행위원장

## “광주 체육시설 완벽한 여건 갖췄다”



월드컵 경기장·염주체육관 최고 수준

후보 도시 시민들의 유치 열망이 관건

하게 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를 주관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조지 킬리안(84)집행위원장은 7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과 각종 체육시설은 지금까지 둘러본 여러 도시의 경기장 가운데 최고”라고 밝혔다.

킬리안 위원장은 이날 애릭 생트롱 사무총장과 함께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둘러본 뒤 “해외 여러 나라들의 경기장이 대부분 오래된 것들인데 특히 광주 월드컵 경기장은 매우 새롭고 신선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빛고을 체육관, 염주 종합체육관도 최고의 수준을 갖추고 있다”며 “모든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완벽한 여건을 갖췄다”고 극찬했다.

2013년 U대회 유치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킬리안 위원장과 애릭 생트롱 사무총장이 U대회 유치 후보도시인 광주시를 방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개최지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가 러시아 칸 등 유치 경쟁 도시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찾은 것은 그만큼 광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보유한 체육시설을 잇따라 둘러본 킬리안 위원장은 “만약 광주시가 개최국이 된다면 FISU가 규정한 정식종목 외에 개최지가 선택할 수 있는 종목으로 어떤 스포츠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희망 섞인 질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또 대학의 숫자와 체육관 보유 여부, 숙박시설 등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에게 잇따라 질의하는 등 광주의 대회 유치 인프라

를 꼼꼼히 점검했다.

U대회 유치 노력과 관련, 박광태 광주시장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는 그는 “중요한 유치조건이 여러 가지 있지만, 충분한 경기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선수단 숙소가 경기장과 가까운 것은 물론 후보 도시의 시민들의 유치 열망이 높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킬리안 위원장은 “광주에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오늘 처음 알았다”며 “(시민들의 희생에) 매우 큰 감동을 받았고 가슴이 뭉쳤다. 마음 속으로부터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뉴욕 출신인 킬리안 위원장은 1999년 이후 10년째 FISU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미국의 U대회 대표팀 단장을 세 차례나 역임한 FISU의 산증인이다. 그는 2003년 대구 하계 U대회에 남·북한 동시 참가를 이끌어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이날 조선대로부터 명예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산 누에씨 ‘백옥잠’  
작년 이어 또 우즈벡 간다  
전남농기원, 400상자 수출

전남에서 생산된 누에씨(누에알)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우즈베키스탄에 수출된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7일 “장성군에 위치한 농산물원종장 분장에서 자체 기술로 생산한 ‘누에씨’ 400 상자(10g들이) 7.6kg을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누에씨 수출은 농촌진흥청과 우즈베키스탄 나민간주(州)간의 양자기술 이전 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300 상자(5.7kg)를 수출한데 이어 두번째다.

이번에 수출되는 누에씨는 전남도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순도 높은 ‘백옥잠’ 품종으로 누에가 강건하고 고치층이 두꺼워 실의 끊김이 없다.

누에씨는 8일 수출업체인 ‘케이알씨 캠퍼니’를 통해 10g 상자당 3만 원씩 총 1천200만원에 수출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출이 기대된다.

전남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분장은 지난해에도 누에씨 4천상자를 인공부화시켜 농가에 공급해 기능성 누에 및 누에고치 생산을 통한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시켜 농가의 호응을 받고 있다.

김종선 분장장은 “앞으로 누에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함께 누에씨 수출을 통해 수익 증대 및 친환경농업 이미지 제고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김용철 변호사 증인 채택 문제로 대립하면서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다. 이날 오전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앞쪽)가 의원들의 텅비자리를 마주한 청문회장에 훈자 앉아 있다. /연합뉴스

## 김성호 국정원장 청문회 무산

여야, ‘삼성 떡값’ 증인 채택 싸고 대립  
삼성특검, 김용철 변호사 주말 조사

국회 정보위원회는 7일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김 내정자의 ‘삼성 떡값’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청문회가 무산됐다.

증인 채택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합민주당측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인사청문법에 따라 한나라당과 협의해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는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추가 협의에 응할 수 없다고 경경 입장이어서 추후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0일이 경과하는 오는 23일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김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측은 김 변호사가 이날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청문회 5일 전에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발송토록 한 인사청문회법상 증인 출석 요구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12일로 연기해 김 변호사를 출석시키자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김 변호사 출석 요구는 김 내정자에 대한 절차 공세에서 비롯된 것인 믿음 청문회 연기 주장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김 변호사의 출석을 청문회 연기 주장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최근 ‘삼성 떡값 의혹’ 등을 전주교정의 구현사제단과 함께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를 이르면 주말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

는 만큼 반드시 김 변호사로부터 진실을 들어야 한다”면서 “김 변호사가 출석에 부정적이라도 출석요구서가 가면 충분히 생각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증인으로 함께 신청한 전주교정의 구현사제단 소속 신부는 국회 출석의사를 밝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증인이 안 나온다고 해서 청문회가 연기된다는 국회의 역사상 없었던 일로 믿을 수 없는 한 사람의 막연한 주장 때문에 청문회가 지연되는 것은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최근 ‘삼성 떡값 의혹’ 등을 전주교정의 구현사제단과 함께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를 이르면 주말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

## 시 설

### 전남 서남부 갯벌 보존대책 시급하다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꼽히는 전남 서남부 해안의 갯벌이 지자체의 무분별한 ‘갯벌 축제’로 훼손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 서남부 해안에선 매년 신안 갯벌 음성 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등 갯벌 관련 각종 행사가 해당 지자체 주제로 열리고 있다. 갯벌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갯벌 축제 때마다 전국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 갯벌은 몸살을 앓고 있다. 갯벌이 유실되거나 오염돼 각종 어패류 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무안, 신안지역의 갯벌 낙지 생산량이 크게 줄고 있는 것도 갯벌 훼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갯벌은 ‘자연의 콩팥’ ‘해양식물 저장창고’ 등으로 불리는 자연의 보고(寶庫)이다. 물론 갯벌 축제를 통한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갯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축제를 열어야 한다. 갯벌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축제에 미치는 영향부터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체험권 수를 제한하거나 축제를 겨울 또는 3년제로 치르는 등 보존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다. 자손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유산인 갯벌을 우리 세대에서 망치는 죄는 짓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갯벌은 ‘자연의 콩팥’ ‘해양식물 저장창고’ 등으로 불리는 자연의 보고(寶庫)

자은행 등은 당초 5%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으나 대부분 최근 수정을 통해 전망치를 대폭 낮췄다. 3%대의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곳도 있다.

물가 상승과 성장률을 저하는 새 정부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최근 주택용 및 일반용 전기료 인하 및 유류 세 10% 인하 등 물가 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외적 요인의 영향이 위축 커 한계를 안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물가 잡기에 나섰으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성장률을 연연해선 안 된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일시적이 아니라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 현상이다. 성장을 위해 선불리 환율과 금리 등에 개입해선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 인기 영합적 경제성장보다는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물가부터 확실히 잡기 바란다.

물가 상승과 성장을 저하는 새 정부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최근 주택용 및 일반용 전기료 인하 및 유류 세 10% 인하 등 물가 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외적 요인의 영향이 위축 커 한계를 안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물가 잡기에 나섰으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성장률을 연연해선 안 된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일시적이 아니라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 현상이다. 성장을 위해 선불리 환율과 금리 등에 개입해선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 인기 영합적 경제성장보다는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물가부터 확실히 잡기 바란다.

한상률 국세청장과 임해진 검찰총장,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유임됐으며, 4월 임기가 종료되는 전상우 특허청장은 일단 임기를 제출 것이라고 정부와 관계자는 전했다. 김종훈 본부장의 경우 사표를 공식 제출했으나 반려한 뒤 유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차관급 외청장에 대한 인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면서 “차관급 외청장 인선은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성과 역량을 종신했으며, 조직안정을 고려해 관련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성률 소방방재청장은 이날 임명된 외청장 및 차관급 인사 중 유일한 전남 출신으로 방송통신대를 졸업한 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장과 행자부 중앙소방학교장을 지냈다. /연합뉴스

국사편찬위원회는 정옥자 서울대 명예교수, 증명공무원교육원장에 정장식 대구 대객원 교수, 소방심사위원장에 강병규 행

## 北 조평통 “남측 인권 언급은 반민족적 망발”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측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반민족적 망발”이라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최근 남조선(남한)의 보수집권세력의 극악한 망발”이며 “용납 못할 엄중한 도발”로 규정한 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분별 있게 저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변인은 특히 한국 대표의 인권 발언을 “보수집권세력의 극악한 망발”이라며 “용납 못할 엄중한 도발”로 규정한 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분별 있게 저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 日만정

- 김종우



통과되는 신통방통한 일은 없을거요

## 한·중, 베이징 올림픽 전후 무비자 왕래 추진

### 이달말부터 中 관광객 복수비자 대상 확대

베이징을 립抨 기간을 전후한 9월부터 한·중 양국간 무비자 입국이 추진되고 이달 말부터 중국인 관광객의 복수비자 발급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취임 1주일 째인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7일 오전 처음으로 법무행정 현장인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출국장에서 외국인 승객 등의 의견을 듣고 출입국 심사 업무 등을 체험한 뒤 이런 정책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차원에서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수시 방문 기업인과 그 배우자·자녀, OECD 국가에

주자, 일정 횟수 이상 방한한 항공사·선사 임직원, 상품 구매 소규모 상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부터 도입된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비자 입국 제도 등이 여전히 불편하다는 업계 지적을 받아들여 인솔교사의 영사 인터뷰와 여권 제출, 단체 관광객 입국신고서 작성 등을 듣고 출입국 심사 업무 등을 체험한 뒤 이런 정책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차원에서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수시 방

문 기업인과 그 배우자·자녀, OECD 국가에

편집국내내 〈대표 FAX 222-4918〉 면 접 부 정 치 부 경 제 부 사 회 1 부 (F A X 222-4267)	사 회 2 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경 영 지 원 국 2200-619 222-0118 2200-626 2200-628 2200-627 2200-690 2200-536 2200-517	2200-511 222-8005 2200-521 2200-651 227-9500 서 을 지 사 02-773-9335 2200-510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2-4267)
주자, 일정 횟수 이상 방한한 항공사·		